번역본

누구의 평화,
누구의 안보를 위한 전쟁인가?

주드 랄 페르난도 박사
더블린대학교 트리니티대학 교수
번역: 신승민 목사

들어가며

최근 오키나와 시장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키나와에서 계속되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중단해 줄 것을 미 국무부 당국에 간청했다. 많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본토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서는 중국과의 전쟁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미국 평화운동가들이 미 당국을 방문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백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그 요구는 묵살되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제재 때문에 주민들의 굶주림이 계속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재개되었다. 인도적 지원 대신 오히려 미국의 핵잠수함이 바이든—윤 워싱턴 선언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하고 보복 위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보복 위협의 주요 원인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 줄 것을 유엔에 요청했지만 무시되었다.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직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 방문이 '완전히 무모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하다'고 엄하게 경고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의장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긴장을 조성하는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지금 대만인들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엠마뉘엘 프랑스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에서 돌아와 유럽은 미국의 전쟁 드라이브와 중국의 과잉 반응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중·미 갈등의 결과인 중국·대만 간 전쟁 준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많은 서구 지도자들은 마크롱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크롱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키이우와 모스크바를 방문해 평화협정을 제안했지만, 런던과 워싱턴은 키이우를 강하게 지지해 갈등이 고강도 전쟁으로 번졌다. 전쟁 중에도 몇 가지의 평화 계획이 제안되었지만 미국과 영국에 의해 차단되었다. 가장 최근에 중국은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질책을 받은 평화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우크라이나의 무장보다는 양국 간 협상을 촉구했다. 이 전쟁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유럽연합(EU), 독일 간의 공동 핵 협상이 타결되었다. 2018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철회했다. 2011년 아랍연맹과 유엔이 조정한 6개 항의 시리아 평화 계획이 있었고, 시리아 정부와 야당의 지지를 얻었지만, 런던과 워싱턴이 자유 시리아군에 제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 평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했고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고향을 떠났다. 2011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아랍,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 간 평화안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알카에다가 이끄는 지상 반군단체에 공중 엄호를 제공하며 리비아에서 전면전을 펼쳤다. 오늘날 리비아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더 나은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유럽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하면서 일부는 바다에서 죽는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2006년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LTTE)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을 때, 영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EU가 LTTE를 불법화했다. EU 소속 6개 국가들은

---

1 David Smith, Pelosi's 'reckless' Taiwan visit deepens US-China rupture-why did she go?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aug/07/nancy-pelosi-taiwan-china-visit-military(accessed: 25 March 2023)

이 조치에 반대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 조치에 찬성하라고 그들을 압박했다. 휴전 감시단장인 울프 헨드릭슨 스웨덴 장군은 LTTE 불법화는 전면전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EU는 이 경고를 무시했다.[2] 이로 인해 2009년까지 이어진 전쟁으로 적어도 7만 명의 타밀인들이 죽었다. 스리랑카는 심각하게 군사화되었고 후에는 깊은 경제불황에 빠졌다. 2003년 독일과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은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감행해 이라크 전체 사회구조를 파괴했다. 최고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이라크는 극심한 빈곤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준비 목록은 매우 길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주요 사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 모든 상황과 이와 유사한 상황 뒤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다. 전쟁과 전쟁 준비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있다: 전쟁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전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자.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하여 정치적 협상을 제안한다. 이를 평화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자. 두 가지 패러다임은 군사력에 의한 '정복의 평화'와 합의에 의한 '협상된 평화'의 두 종류의 평화를 대표한다. 나는 이 두 패러다임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많은 나라들이 이 지구적/지정학적 힘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누구의 평화, 누구의 안보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쟁 패러다임도 평화를 약속한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세계를 지속적인 전쟁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안보 역시 군사화된 평화에 의해 보장된다.

전쟁 패러다임과 지구적 군사화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전쟁 지역에서 죽고 고통받으며 난민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현지인들이다. 그들은 직접적

2 Permanent Peoples' Tribunal, *Peoples' Tribunal on Sri Lanka*(Bremen: Permanent Peoples' Tribu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 2013).

인 피해자이다. 그들은 현지의 분쟁 유발자들에 의한 희생자인 것 같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조직된 전쟁 패러다임의 희생자이다.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는다. 많은 이들이 불구가 되고 강간의 희생자가 된다. 이러한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국경이 강화되었다. 전략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의 물결 위에서도 경계선을 확보하기 위해 전선이 그어졌다. 섬들은 전략적 자산으로 변했다. 국민들은 공포에 질려 강제로 대피했다. 전쟁 드라이브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지속될 수 없을 때는 공중폭격, 드론, 인공위성[3]을 통해 하늘로 확장되고 우주로도 확장된다.[4] 언론은 이러한 전쟁을 내분이나 저개발 국가에 고질적인 문제인 학살, 테러 또는 분쟁 당사자들의 융통성 없는 결과라고 예단해 버린다. 사실, 모든 희생자들은 전쟁 패러다임의 희생자들이다. 전쟁 패러다임은 정확히 무엇인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누가 주도하는가? 수백만 명이 죽는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전쟁 패러다임은 식량, 의약품, 주택, 여가, 민주주의, 인권, 사업, 자연 보호 등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관심사에 대한 군사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 육지, 바다 및 하늘의 안보화에 기초한다. 독일의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도로시 죌레는 "군사·정치적 국가안보 독트린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인권이라는 낡은 정치적 가치와 신념을 대체하고 대신 '국가안보'가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최대의 위험이며, 이에 대한 배신은 치명적인 범죄이다"[5]라고 말한다. 왜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사용어를 빌리자면, 이는 취약성의 창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주도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누가 전쟁을 주도하는가? 많은

---

3 Thomas Hippler, *Governing from the Skies: A Global History of Aerial Bombing* (London/New York: Verso, 2017).

4 TN Tripathi, 'Weaponization and Militarization of Space,' https://indianarmy.nic.in/WriteReadData/Documents/Weaponisation.pdf(accessed: 25 March 2023).

5 Dorothee Soelle, *The Window of Vulnerability: A Political Spirituality*(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09.

이들이 주도하는가? 아니다. 세계 군사화에는 지도력이 하나이다. 전쟁 패러다임은 단순히 군산 복합체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에 대한 우월주의적 주장과 신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막스 베버는 근대국가를 (전근대의 상이한 무장정치 단위와 비교하면서) 폭력의 독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폭력의 독점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근대 제국건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된다. 전쟁 패러다임은 제국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로 등장했다.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의 제국의 통치하에 두려는 제국주의적 야망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군사화는 근본적으로 제국의 힘을 투영하는 것이다. 폭력을 세계적인 규모로 독점함으로써 근대제국이 건설될 수 있다. 특정 국가를 국제적인 국가체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세계적인 군사화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에 합류하도록 강요된다. 근대 제국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 세계에 강요되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주의 세계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적 결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과 연합하여 소련에 대항한 제국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다. 냉전 이후 지배적인 제국주의 강국,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미국이다. 군사화를 핵심 특징으로 강화하고 전 세계 약 800개의 소규모 및 대규모 군사 기지를 유지한다(Vine 2015, 4). 첨단 무기의 판매, 개발 및 배치와 함께 전체 경제는 전쟁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이 제국의 뼈대이다. 따라서 신세계 질서로 알려진 냉전의 종식은 단일 제국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군사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간 그리고 전 세계의 민족 및 종교 공동체 간에 깊은 양극화를 초래했다. 공산주의 공포증은 이슬람 혐오증, 중국 혐오증과 러시아 혐오증으로 대체되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및 태평양 제도,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의 개별 국가와 지역은 새로운 전선으로 편입되었다.

군사 제국인 미국은 지상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병사들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대신, 동맹국의 군대는 자국의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제국의 지배자를 위한 전쟁에 나서며, 이러한 국가 안보는 종종 다수족 종교 정체성과 제휴하며, 이는 다시 근본주의 버전의 종교와 일치한다. 제국과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전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 또는 그 조건을 열망하는 의지가 예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불행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이글턴 2005, 118).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라크는 오늘날의 제국주의적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모든 것을 강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고서는 제국은 제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강력함은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된다. 미국은 쿼드와 AUKUS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경제확장을 차단해 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 패러다임을 고착화 함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했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군사 제국의 힘의 투영이다. 누구의 평화? 누구의 안보인가? 여기에서 평화는 혹은 국제관계는 평등이 부재한 상태로, 하나의 지배적인 힘 하에서 성취되는 국제질서이다. 여기에서 안보는 그 지배적인 힘을 위한 안보를 의미한다.

전쟁 패러다임과 군국주의

종종 군사화와 군국주의라는 용어가 번갈아 사용되지만, 이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군사화는 전쟁의 하드웨어이고, 군국주의는 전쟁을 합법화, 정당화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제국은 마음과 정신을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시키지 않고서는 군사화의 물리적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안보에 대한 신뢰 시스템과 그러한 구조물을 우상화하는 새로운 신조를 통해 제국의 소프트웨어가 형성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려면 그것들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전쟁에 대한 반대는 전쟁 반대 가능성과 그 가능성의 조건을 다시 조성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반대하려면 전쟁에 대한 대중의 동의가 어떻게 배양되고 유지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즉, 전쟁이 어떻게 감각에 작용하여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좋은 것이거

나, 심지어 도덕적 만족의 원천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6] 그러면 전쟁 패러다임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안보는 제국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암송되고 있는 새로운 신조가 되었다. 종종 이 신뢰 체계의 언어는 현대의 세속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종교적 언어에 의해 지지되고 정당화된다. 군국주의는 군사화를 통한 안보가 사회에 '평화'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념적 힘이다. 법은 그런 취지로 도입된다. 법과 진실 판단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진실은 알 필요가 없다. 법을 적용할 뿐이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가치 있는 피해자, 가치 없는 피해자로 분류된다. 인생은 애도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삶으로 분류된다. "애도할 수 없는 삶은 잃을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는 삶들이고, 존재론적으로 이미 상실되고 파괴되어 있으며, 이는 설령 전쟁에서 파괴되었을 때라도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7] 전쟁 패러다임은 종종 평화, 민주주의, 인권, 발전, 여성의 자유, 핵 위협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군사화된다(스리랑카). 인권도 군사화되어 있다. 인도주의적 원조도 군사화되어 있다(시리아). 민주주의도 군사화되어 있다(이라크, 리비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기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무기'라고 말했다. 누구의 평화? 누구의 안보인가?

제국은 군사화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고유의 확장과 통제 논리로 인해 지속적인 전쟁상태에 있으며, 안보를 명분으로 진보적인 사회, 정치운동을 범죄화하고 파괴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떠한 평화적 협상도 파기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생각 또한 군사화되었고 제국이 음흉한 의제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보혁 2014). 침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세계 안보와 평화(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카슈미르, 시리아, 타밀 엘람 또는 예멘)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며, 제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국가(예: 북한)를 위해 제안되고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된 제재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식량과 의약품

---

6 See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London/New York: Verso, 2016), ix.

7 Judith Butler,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London/New York, Verso, 2016), xix..

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았다. 국제 제재와 국가보안법은 NGO와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 즉 국경을 넘어 인도적 지원을 조직하고 상대방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의 평화? 누구의 안보인가? 인도의 평화운동가 아룬다티 로이는 이것을 '피를 흘리는 평화'라고 표현한다.

전쟁 패러다임은 안보화되거나 군사화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구의 안보인가?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무엇인지는 특정한 국제질서 안보가 결정한다. 초강대국의 안보가 그 국제질서를 이끌고 그 초강대국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적의 상태로 보호한다. 초강대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전략적 위치를 재구성함으로써 연합국에 안전을 보장한다. 다자주의는 용납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한반도와 태평양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러한 경계가 되고 있다. 서방은 NATO 동맹을 통해, 유럽·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전쟁 패러다임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불개입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침공 당시 영국의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방위군 최소 2만 명을 훈련시켰다. 전쟁 패러다임을 진전시키는 동안 모든 평화협상이 중단되었다. 여기에서 법의 적용과 정치적 진실판단은 별개이다. 제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개입 방식에 대한 진실은 은폐되어 있다. 냉전 이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보장들이 이행되지 않았다. 대신 NATO의 힘은 확장되었다. 취약성의 창이 닫히고 초강대국을 무적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초강대국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대만해협에서 과시하고 있다.

평화 패러다임: 전쟁에 대한 저항과 민중의 평화

우리는 또한 전쟁 패러다임에 저항하고 평화 패러다임을 지지해온 많은 집단과 사람들의 타협 없는 열정과 투쟁을 목격한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 역사

적 운동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운동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 관심에 의해 촉발되었다.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망의 절규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절규이기도 하다. 평화 패러다임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군사화된 안보 위에 둔다. 사실 평화 패러다임은 국가 안보와 구별되는 인간 안보를 우선시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관심사에 대한 요구는 취약한 이들로부터 나온다. 취약한 이들은 서로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취약성의 창을 열어 다른 이들과 연결한다. 서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이 전쟁 패러다임과 그 세계적인 군사화와 군국주의에 도전하는 힘이다. 사실 제국은 동등한 동맹국이 없고,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신하들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제국은 인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국 시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숙자, 실업자, 병자,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버려졌다. 서로 연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민주주의, 정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평화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사실 전쟁 패러다임 하에 있는 우리의 취약성을 깨달을 때 평화 패러다임이 작동한다.

평화 패러다임은 사회의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사회적, 경제적으로 쌓아온 것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들로부터도 촉발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전쟁 패러다임과 군사화, 군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결성했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국경을 공유했다. 그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 유럽과 러시아는 기본적인 인간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Nord Stream I 및 II 해저 가스관 건설을 통해 공동의 경제협력을 구축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했고, 한반도에는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미국의 감시하에 시행되었다. 중국은 독립하여 경제를 발전시켰고, 일본과 한국도 경제를 발전시켰다.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경제협력과 평화 패러다임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군사화를 통한 미국의 힘의 투사는 이 지역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패러다임의 한 가지 좋은 예는 개성공업지구였다. EU는 미국과 영국의 전쟁 패러다임에 합류했다. 러시아도 전쟁 패러다임에 돌입했다. 주 방아쇠는 외부에서 왔다.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현재 적대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적대적 갈등은 동아시아에서 노골적인 방식으로 곧

일어날 수도 있다.

나가며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필요한 기본 단계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모두는 취약하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법, 언론, 공개토론 등을 통해 군국주의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허용하기보다는 분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평화 패러다임을 국제화하지 않고는 전쟁 패러다임에 저항할 수 없다. 전쟁 패러다임은 세계적인 군사화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질서가 지역을 지배한다. 따라서 지역은 평화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지구적 운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집단만으로는 전쟁 패러다임에 저항할 수 없다. 평화 패러다임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때로 국가의 진정한 힘과 실용주의는 전쟁을 멈추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군사화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예언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거짓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들의 신이 아니라 제국에 대한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사화를 강화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에 맞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 시대의 가장 잘못된 믿음이다. 사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안보가 핵잠수함과 무기화에 의존한다고 믿게 만드는 죽음의 숭배이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지구를 파괴한다. 그런 믿음은 생명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어긋난다.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제국의 파괴적인 전쟁 패러다임에 대한 유일한 답은 자기희생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심지어 적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갈등 당사자들 간의 상호이해를 통해 성취되는 평화를 포용해야 한다. 문과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독일의 미군기지에도 반대했던 도로시 죌레의 시를 인용한다.

<취약성 창>

취약성의 창
닫아야 한다 —
그래서 군대가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피부
취약성의 창.
습기 없이, 손도 대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한다.

취약성 창이
봉쇄된다.
내 땅,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우리는 빛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다.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창문이 필요하다. 천국을 향해 열린 창문이[8]

8 Soelle, *The Window of Vulnerability*, vii.